

해외출장 보고서

I. 출장 개요

- 출장 건명: 한·미 농업협력체계 강화 및 개도국 공동지원사업 추진 협의
- 출장 목적: 한·미 공동 개도국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협의
-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기관
 - 국가: 미국
 - 주요 방문기관: 미 농무성(USDA), 미 국제개발처(USAID), 미 국무성, 미 국방성, 세계은행(World Bank), 빌&멜린다게이츠재단(Bill & Melinda Gates Foundation)
- 출장 기간: 2010. 4. 25 ~ 5. 2(6박 8일)
- 출장자 인적사항

부서명	직 급	성 명
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	연구위원	허 장

II. 출장 내용

1. 출장 일정

일 정	주요 활동 내역	주요 면담자
2010. 4.25(일)	◦ 인천 국제공항 → 미국 워싱턴 DC 도착	◦ 주미 대사관 허송무 검역관
4.26(월)	◦ 회의 - USDA - World Bank	- Janet Nuzum, Pat Sheikh 등 해외 농업처(FAS) 인사 - Juergen Voegelé, Christopheo Delgado 등 농업농촌부 인사
4.27(화)	◦ 회의 - USAID - 미 국무성 - 미 국방성	-Scott Christansen, Timothy Lavelle 등 -Ann Ryan, Kurt Tong 등 -Diane Halvorsen 등
4.28(수)	◦ 회의 - USDA	◦ Wrap Up meeting - John Brewer, Janet Nuzum, Pat

		Sheikh 등 FAS 인사
4.29(목)	◦ 워싱턴 DC → 시애틀 도착	◦ 주시애틀 총영사관 최영한 영사
4.30(금)	◦ 회의 - 빌&멜린다 게이츠 재단	- Sam Dryden, Chris Gingerich 등
5.1(토)~2 (일)	◦ 미국 시애틀 → 인천 국제공항 도착	

2. 면담자 인적사항

☐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처(FAS)

- John D. Brewer, 처장
- Janet Nuzum, 부처장(Associate Administrator and General Sales Manager)
- Ann Tutwiler, 농무장관 세계식량안보 협력관
- Patricia Sheikh, 해외농업처 능력 개발 담당 부처장(deputy administrator)
- Christine Turner, 해외농업처 선임 자문관
- Timothy Powers, 식량원조과 수송 책임관
- Amy Harding, 원조 식량 수송 담당관
- Bryan Norrington, 북아시아 담당관
- Maria Pool, 한국 담당관
- Don Evans, 프로그램조정관, 아프리카정책조정 담당

☐ 미국 국무부

- Kurt W. Tong, U.S. Senior Official for APEC
- Deena Magnall, Economic Officer,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
- Robert F. cekuta, 식량안보 선임자문관
- Gary A. Clements, Chief of Agriculture, Biotech & Textile Trade Affairs
- Ann Ryan, Foreign Affairs Officer

☐ US 국제개발처(USAID)

- Scott Christiansen, 선임농업개발자문관
- Timothy Lavelle, Senior Food Security Advisor for Africa
- Kathryn Sell Garcia, Agriculture Development Officer
- David Hegwood, Senior Food Security Advisor

☐ US 국토안보청(Defense Security Cooperation)

- Dawn C. Heuschel, Humanitarian Assistance
- Diane Halvorsen, Programs Deputy for Humanitarian Assistance

□ 세계은행(World Bank)

- Juergen Volegele, 농업농촌개발국장
- Gerhard P. Dieterle, 산림 담당
- Christopher Delgado 전략 및 정책 담당(식량안보 기금 담당)
- Michael Arbuckle 수산 담당

□ 빌&멜린다게이츠재단

- William W. Gates Sr.고문, 재단설립자 Bill Gates의 아버지
- Marcha Choi, Chief Administrative Officer
- Sam Dryden,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Development
- Robert B. Horsch, Deputy Director, Agriculture Development
- Prabhu L. Pingali, Deputy Director
- Roy Steiner, Deputy Director
- Arlene Mitchell, Senior Program Officer
- Lawrence Kent, Senior Program Officer
- Jeffrey Ried, Program Officer, Agriculture Development
- Christian Witt, Senior Program Officer, Soil Health
- Chris Gingerich, Senior Program Officer, Agriculture Development
- Sherry-Lee Abrahams, Associate Program Officer
- Brantly Browning, Program Officer, Policy & Advocacy
- Brady P. Walkinshaw, Associate Program Officer

III. 출장기관별 협의결과

1 미국 정부기관

핵심 성과

- ◆ 식량안보, 기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에 적극 동참 의지 표현 및 공감대 형성으로 국격 제고 기여
- ◆ ODA 등 미국의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사업 실태 파악 및 구체적인 공동협력방안 모색 합의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토대 마련
- ◆ 양국 농업부서간 협력약정(MOU) 및 개도국 공동협력사업 추진 의향서(SOI)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인 및 지속 추진 합의

가. 주요 성과

- ① 개도국에서의 식량안보, 기아, 농촌개발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아국의 적극적인 동참의지 표현 및 공감대 도출
 - 과거 압축고도성장을 이룬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개도국과 공유 가능한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감
 - 개도국 지원의 선도국가로서 오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하면 많은 시너지를 창출 가능
 - ※ 미측은 한국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개도국에서 귀감이 되는(enlightening) 존재라고 언급
 - 미측은 지난 4.22일 세계은행 주도로 출범한 “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Fund”에 아국이 5개 기금 출연국가 중 하나로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협력방안 모색 필요성에 공감

② ODA 사업을 실제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(안) 협의로 향후 구체적인 공동협력사업 합의 토대 마련

- 우리측은 3가지 공동 협력사업(안)을 미측에 설명한 후 공동추진 가능성을 협의하였음.

※ 협력사업(안) : ① 아프리카국가에 씨감자 생산기술 이전, ② 캄보디아에 식품검역능력 제고, ③ 아프리카 및 태평양섬국가에 해면·내수면 양식기술 이전

- 미측은 우리측 제안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(안)으로 평가하고 자국의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후 입장을 결정기로 함.

- 미측은 자국의 “Feed the Future Initiative”(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, 조만간 발표 예정)를 설명하고 우리의 참여 및 공조를 요청

※ Feed the Future Initiative는 식량안보, 기아,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국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전략 및 세부실천 방안을 포괄하고 있음.

③ 양국 농업부서간 개도국 공동협력사업 추진 SOI 추진 공감대 재확인 및 지속 추진 합의

- 농식품부측은 5월 이내 SOI 서명 희망 입장을 피력

- SOI는 양국정부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정신을 담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

- 미측은 미국 또한 진전을 이루고 싶지만, 각 관련 정부부처와의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

※ 미농업부 해외농업처(FAS) John D. Brewer 처장, 국무부 고위공무원 Kurt W. Tong 등 면담

④ 양국 농업부서간 협력약정(MOU) 체결 필요성 재확인 및 미측의 조속 추진 촉구

나. 관찰 및 평가

- ① 양국은 식량안보, 농업투자 등 공동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,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공조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
 - ② ODA 공동협력사업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급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
 - 미국의 whole-of-the-government 체계에 따른 의사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세부협력사업 합의를 위해서는 양측의 전향적 자세 필요
 - 미측은 Feed the Future Initiative[※]를 중심으로 농무부, 국무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체계이므로 추후 양자협력 구체화 시 적극 검토 필요
- ※ 20개국 중심, 국별 평가, 수혜국 수요 조사, 재원확보 등
- ③ 미국의 국제협력사업은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어 그간 논의된 농업부서간 MOU 및 개도국 공동협력사업 추진 의향서(SOI)의 체결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핵심 성과

- ◆ 식량안보, 기아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(Letter of Intention) 추진 합의
- ◆ 개도국에서 공동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국제협력사업 마련을 위한 양측간 실무협의 지속 합의(1개월내 세부사업계획 교환)
- ◆ 세계농업식량안보펀드(FAFSF) 운영에 공조기로 합의

가. 주요 성과

- ① 기아, 빈곤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아국의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게이츠 재단의 적극적 지지 확보

- ※ 재단 고문이자 이사장인 Bill Gates의 부친인 William Gates Sr.는 대표단에 직접 감사 표명 및 향후 협력의지 표명
- 재단사무총장 Marcha Choi도 별도로 적극 협조의지 표명

- ② 농촌개발, 식량안보, 기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협의

- 양측은 향후 1개월 이내에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(안)을 교환하기로 합의

- ※ 국제농업연구자문단(CGIAR), 아프리카녹색혁명연맹(AGRA) 사업을 통한 공동협력방안 지속 협의

- 특히, 에티오피아에서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을 인식하고 세부 방안은 지속 협의 합의

- ③ 4.22일 출범한 “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Fund” 운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합의
- 기금 참여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하고, 최근 참여 의향을 보이는 호주 및 아일랜드의 참여 유도에 양측이 공조
 - “기금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)”에 농업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 공유
 - 게이츠재단은 5월 중순 개최예정인 운영위원회 회의에 아국 농업전문가가 대표 또는 교체대표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
- ※ 캐나다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금융전문가와 농업전문가를 참여시킴.

나. 관찰 및 평가

- 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합의는 아국이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농업분야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컸음.
- ※ 재단은 우리대표단 방문에 William Gates Sr., 사무총장 Marcha Choi 등 고위 관계자가 환영을 표명하고, 하루 종일 협의에 나서는 등 높은 관심 표명
- ② 농식품부와 게이츠재단이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파악 및 이행 철저 필요
- 동 재단과 지속적 협의채널 유지 및 구체적인 사업마련을 위한 실무접촉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
- ③ 게이츠 재단도 “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Fund” 운영 위원회에 농업전문가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.
- ※ Fund 출범식 직후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우리나라는 기재부 관계자만 참석

핵심 성과

- ◆ 세계은행의 국제농업개발 업무에 아국의 적극적 동참 및 상호 협조 인식 공유
- ◆ 세계은행에 농식품부 농업전문가 파견 추진 합의

가. 주요 성과

- ① 세계농업식량안보포럼(GAFSF) 등 세계은행의 농림수산부문 활동에 적극 참여의사 피력 및 식량안보, 농촌개발 등 공동관심사 협의
 -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아국의 발전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 희망
 - ※ 세계은행 농업개발국장 Juergen Voegelé 등 농림수산분야 관계자 면담
- ② 금번 새로이 조성된 GAFSF의 관리대행자(Trustee)인 세계은행의 농업농촌개발국장은 동 기금 운용과 관련 우리측 관련 전문가의 참여 및 공조를 희망해 왔고 우리측은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강조
- ③ 농식품부 농업전문가 세계은행 파견을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합의
 - 우리 측은 농촌개발, 식량안보 등에 있어 아국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 등 긍정적 측면 강조
 - 세계은행은 전문분야에 대한 유능한 지식과 더불어,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직원의 파견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
 - 세계은행측은 파견에 필요한 인사관련서류를 추후 송부키로 함.

나. 관찰 및 평가

- ① 세계은행은 농촌개발, 식량안보 등에 있어 국제적인 선도 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업무활동에 DAC 회원국으로서 적극 참여 필요
 - 세계은행 측과의 실무연락창구 지속 유지 필요
- ② 농업전문가의 세계은행 파견에 대해 세계은행 측은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, 실무협의 등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

다. 향후 계획

- ① 세계은행 주관 국제회의, 농업협력사업 등에 농식품부 차원 적극 참여 추진
 - 농식품부 관계자가 동 펀드 운영위원회 또는 교체위원으로 지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
 - 특히,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펀드 운영관련 후속회의(5월 중순 예정) 등 적극 참여
- ② 농식품부 농업전문가 세계은행 파견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(기획재정부 등)

Ⅲ | 출장성과 평가

1. 한-미간 농림수산 협력 강화 전기 마련

- 개도국에서의 국제협력사업(ODA) 등에 관한 한-미간의 폭넓은 의견 및 정보 교환
 - 농무부, 국무부, 국방부 등 모든 관련 부처와 실질적 협의를 가진 최초의 사례로, 향후 고위급 및 실무급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
- 한-미간 농림수산분야 협력관계를 국제분야로 확대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
 - 아프리카,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합의
 - 구체적 국제협력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 지속 예정
-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양국 농업부서간 MOU 체결 및 개도국 국제협력사업 공동추진 의향서(SOI) 체결 추진 재확인
 - 미국의 추진 동향을 파악해가면서 주도적으로 대응 필요

2. 빌&멜린다게이츠재단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틀 마련

- 농식품부는 동재단과의 협력의향서(Letter of Intention) 체결 합의
- 1개월 이내 양측이 실현가능한 국제협력사업안 교환 논의 합의

3. 세계은행과의 협력 전기 마련

- 농식품부 농업전문가의 세계은행 파견 추진 합의